

사순절
설 교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님의 사랑

<누가복음22:54-62>

한 승 철 목사 (고베동부교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실패와 실패한 제자를 따뜻한 눈길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세 번이나 실패한 베드로를 마지막까지 믿어주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4-55절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54절의 [떨찍이 따라가니라]라는 말과 55절의 [그들 가운데 앉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떨찍이 따라가니라]라는 부분에만 주목하였습니다. 떨찍이 따라가면 안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베드로의 새로운 행동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55절의 [그들 가운데 앉았더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순간 베드로는 매우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갓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따라갔고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만이 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56-60절까지보면 그렇게 용기가 있었던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맹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세 번 반복하면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 사이에서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 사이에서 베드로는 사람의 시선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순간만 지나면 이 위기만 지나면 괜찮겠지] 베드로는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자신이 있다고 과신한 그 부분에서 무너졌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나는 안전하겠지] 자기를 지키는 것과 의로움의 행동 속에서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들은 늘 소원과 책임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소원은 하고 싶은 것이고 책임은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포기

할 것인가? 이 고민은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최악의 상황에서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것을 못해서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의 말씀이 61-6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한 장면은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1절에 있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돌이켜 보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표정 하나가 더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그냥 보고 계십니다. 어떤 눈 빛으로...

닭이 울었을 때에 그 주님의 시선을 보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회개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말도 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순간 실패했지만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이전에 죽을 지언정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맹세...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이 순간 예수님도 참기 힘든 상황이었습니 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종교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떡을 먹었던 사람들,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주님께로 없었습니다. 제자들마저 다 도망쳤습니 다. 믿었던 베드로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고 믿어주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쓴 서신이 베드로전후서입니다. 혹시나 베드로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쓴 구절이 없을가 베드로전후서를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들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의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를 품어 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떤 실패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나 달리기를 바랍니다.

公告《總會奨学生 募集案内》

總會神学生として各地方会にて認定され、1年を経過した者が申請できます。書類は總會事務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募集人員：3名
○支給金額：年額 200,000 円 / 1 人

○支給期間：1 年間 (受給者は、継続して新たな申請必要)
○必要書類：①奨学金申請書 ②在学証明書 ③成績証明書 ④履歴書 ⑤堂会長推薦書 ⑥總會神学生認定書 (各地方会試取部) ⑦各地方会長承認書
○書類提出先：總會事務局
○締め切り：2020 年 4 月 30 日必着

관서지방회

堺교회에 김충락목사 위임
大阪教会에서 5년간 부목사로 봉사

지난 2월 9일(주일) 관서지방회 사카이교회에서 김충락목사의 위임식이 임시당회장 조영철목사의 사회로 성대히 거행되었다.

예배 설교는 한국의 후원교회 내빈으로 참석한 인천대광교회 박진철목사가 <주가 세우신 교회> (마16:18-19)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관서지방회장 임명기목사의 사식으로 거행된 목사위임식은 서약과 기도, 선포, 권면, 축사 등으로 이어졌으며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관서지방회 및 한국 후원교회 등에서 150 여 명이 참석하였다.

금번에 관서지방회로부터 사카이교회의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김충락목사는 1974년 한국에서 출생, 2010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13년에 일본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 오사카교회에서 부목사로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하였다. 사카이교회의 부흥을 위해 귀한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박수경목사)과 1남이 있다.

외기협

전국협의회 및 전국집회
'역사에 마주하는 이민사회' 향하여

1월30 ~ 31일, KCCJ 나고야교회에서 제34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주회는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대 협의회」(통칭:외기협). 일본 각교파, 단체, 각 지역의 외기연, 한국NCC 대표 등 51명이 참가하였다(KCCJ 참가자 12명).

주제 「20세기 역사 과제와 21세기와 21세기 이민 사회의 선교적 과제를생각하며」를 가지고 김명균목사(나고야교회)의 개회설교와 佐藤信行(RAIK) 선생의 기조보고, 캐톨릭 사이타마교구의 마리아란 수도사의 베트남인 지원활동, 재일3세 배명옥변호사의 <조선학교 지원 재관>, 그리고 각 지역으로 부터의 보고와 발제가 있었다.

다음날은 後藤香織사제(성공회)의 성서연구, 한국NCC의 박영락목사의 발제를 듣고 2020년 활동계획을 협의하였다.

계속해서 1월31일 저녁에는 제34회 전국 기독교 집회를 가져, 나고야 및 중부 지역의 기독교가 70명이 참가하였다. 洪澤一郎·聖公会中部教区主教의 메시지가 있는 후, <막힌 담을 열고~힘든 삶을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네스트로 푸노 씨의 필리핀 어린이들의 보금자리 <국제 어린이 학교>에 대하여, 徳弘浩隆목사(日本福音ルーテル岐阜教会)가 브라질 이민 지원에 대하여, 李正子씨(KCCJ中部女性会)가 재일3세로서 진솔한 생각을 나누었다.

1980년대, KCCJ의 지문날인 거부 운동으로부터 탄생한 외기협은 일본 계교회에 의한 획기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으로서 34년간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 인권 정책도 이주민 정책도 없이 외국인 노동력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 함께 역사 책임을 불문에 붙이고 자국 중심주의로 달리고 있는 국가를 앞에 두고 외기협은 새로운 과제가 주어져 있다. 즉, <역사에 마주하는 이민 사회>의 실현이다. 그것은 21세기 일본사회의 과제이면서 일본 모든 교회의 선교적 과제인 것이다.

(보고:佐藤信行)



관동지방회

제직 연수회 개최
'십자가를 통해 하나 되다' 주제하에
양영우목사를 강사로

2020년 2월16일(주일 오후)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를 장소로, 각 교회에서100여명의 제직들이 모여 2020년 관동지방회 연합제직연수회를 개최하였다.

무코가와교회 양영우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에베소서 2:13-22의 <십자가로 하나되다>라는 주제로 가르침을 받았다. 관동지방회 각 교회에서 제직으로서 사명을 감당코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 제직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회 후에는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가 식사를 준비해서 영과 육의 양식을 함께 채우는 풍성한 시간이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에 감사 드린다.

(보고:이혜숙목사)

관동여성회

1일 연수회를 개최
강은혜 선교사를 강사로 강연회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의 「1일연수회」가 2월11일(화), 각교회 여성회에서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경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개회예배는 박영원회장의 사회로 박은주목사의 「강한믿음으로 이어지는 축복」(마1:1-17)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다.

성경연구 첫 순서로 김혜진부회장의 사회로 양영지명예집사의 간증과 권면이 이어 「거절의치유, 여성의 부르심 I」(누10:41-42) 제목으로 일본선교사 이신 강은혜목사의 강연이 있었다.

점심은 맛있는 도시락과 동경교회 여성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반찬과 과일등으로 푸짐한 식사와 더불어 친교의 시간을 나누면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장소를 제공하며 섬겨주신 동경교회 여성회에 참석자 모두가 감사와 감회가 그 어느때보다 많았다.

오후 성경연구의 두 번째 시간에는 강은혜목사의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자」(마18:21-35)라는 제목으로 용서와 화해를 위한 강연 내용과 함께 각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은혜가 넘쳐나는 일일연수회를 가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보고:박영원회장)



총회수첩수정

서부지방회 미즈시마교회의 임시당회장을 한택주목사로부터 윤종현목사로 수정합니다.

東京教会

최고 재판소가 상고 기각 동경교회 김해규씨 지위부존재 확정

최고 재판소 제1 소법정(森田高弘裁判長)은 2월27일부로, 동경교회 대표역원의 지위에 대한 재판, 김해규씨(62세)의 상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것은 총회의 목사면직 처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표역원(담임 목사) 지위에서 물러나지 않는 김해규씨에 대하여 원고측 신도들이 2016년부터 시작된 재판이 종결되고 김해규씨가 동경교회의 대표역원(담임 목사)이 아닌 것이 확정된 것이다.

발단이 난 2013년1월 공동의회에서 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부터 교회의 정상화를 향하여, 지방회에서 과견받은 임시당회장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상처받은 많은 신도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란다.

『복음 찬송』 모집!

각 교회·각 기관에서 불러지고 있는 찬송(『신한일찬송가』, 『어린이찬송가』 이외)을 정리·번역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찬송가 곡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중 찬송을 풍성하게 하는 다양한 찬송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컴퓨터에 저장해서 보내 주십시오. 곡수에 상한은 없습니다. 일본어나 한국어 뿐인 곡도 가능합니다.

마 감 : 5월31일(화)

송부처 : hcc4080@hanmail.net 최형철

toyonaka1kccj@hotmail.com 박영자

Fax : 06-6718-0988 KCC

찬송가위원회위원장 최형철 080-3779-6774

방문
수기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방문기 <5>

오사카교회 정연원 목사

7. 판문점 방문하고

평양방문 3일째 날, 2019년 7월 30일(화) 방문단은 긴장과 기대감을 가득 안고 남북의 분단의 상징적인 판문점을 방문하게 되었다. 분단의 중심이며 같은 민족이 탱크와 대포와 총으로 형제의 가슴을 향했던 한반도 6.25 동란이 시작되어 3년간의 전쟁을 휴전을 논의했던 전쟁의 아픔을 가장 느낄 수 있고 그 상처를 느낄 수 있는 판문점 방문에 나섰다. 여름 강우량이 적어 걱정이 많았던 농부들에게 은혜의 비가 방문단이 도착하던 다음 날 부터 조금씩 내렸다. 그러나 이 날은 아침부터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렸다. 평양에서 개성까지 170Km의 거리는 왕복 2차선의 고속도로로 잘 정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비가 많이 내려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운전수는 손상된 도로를 달리면서 자동차는 매우 심하게 상하로 흔들렸다. 창밖 풍경은 어느 나라의 농촌과 다름이 없었지만 논과 밭에는 벼와 옥수수가 많았다. 멀리는 제법 높은 산들이 산맥을 이루고 있었고 개성까지는 대체적으로 넓은 평야로 이어져 있었다.

달리던 차가 <사리원시>를 지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 각각 다른 숙소를 사용하던 일본NCC 방문단과 여기에서 만났다. 서로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이렇게 만나 정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개성시를 통과하자 판문점이 눈앞이다. 군사경계선을 가까이 가면서 경비가 삼엄하다는 것을 느낀다. 검문소에서 대표단 전원이 내렸고 안내원은 수숙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그랬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수 십대의 대형버스를 타고 와 있었다. 이들은 이 장소를 어떻게 보고 생각을 할까?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해본다. 우리들을 안내할 군인이 승합차 앞 좌석에 동승을 하여 길 안내를 한다.

처음 방문한 곳은 정전협정 조인장이었다. 1950년 6월25일 오전4시에 시작된 전쟁의 마무리는 휴전이었다.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유엔군 수석대표 미국 육군 중장(中將) 윌리엄 K. 헤리슨(William Kelly Harrison Jr.)에 의해 1953년 7월 27일 22시에 휴전협정을 맺었다. 오늘날까지 67년이 지난 세월동안 이 상태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조인식에 사용된 넓은 회의장 안에는 휴전 당시의 사진과 이후 남북이 관계된 많은 자료를 전시하고 있었다. 다시 자동차를 타고 판문각으로 이동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쪽 <평화의 집>에서 바라보는 북의 <판문각>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날은 정반대로 판문각에서 남쪽 시설을



북측에서 바라본 판문점

바라본다. 남북분계선 위에 지어 놓은 파란 색 지붕의 연락 사무소 건물 3동과 <평화의 집>이 한 눈에 들어온다.

2018년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회담을 한곳이며, 우리 방문단이 북을 방문하기 1달전인 2019년 6월30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눈 후, 현역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곳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판문각에서 안내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2층 베란다에서 남쪽 땅을 바라보며 일본교회 대표 이이즈카 타구야목사의 기도 이어 총회장 김종현목사가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내빈 방명록에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담은 글을 적고 한 사람씩 서명하였다.

판문점을 돌아보고 평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안내원은 우리들에게 “목사님, 판문각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동포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 이해합니다만, 일본사람들은 왜 울죠?” 한참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일본교회 대표단이 쓴 글이 생각난다. “하루라도 빨리 북과 남이 하나 되기를 빕니다. 같은 민족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넘어 자유롭게 오가며 함께 울고 웃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곳 판문점이 미래와 평화의 심벌(Symbol)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공화국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 민족의 소원 통일을 염원하며 북에서 남을 바라보며 전쟁으로 희생당한 사람들, 이산가족들의 서러움을 생각하며 평화로운 통일의 날을 기대하면서 비오는 판문점을 뒤로 하였다.

2020년/제33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자집회 선언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은, 2020년 1월 30일부터 31일에 걸쳐 제34회 전국 협의회를 재일대한기독교회 나고야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세기 역사과제와 21세기 이민사회의 선교과제를 생각하다”라는 주제 하에, 각지의 외기련과 외기협 가맹교회·단체, 한국NCC의 대표자 등 51명이 참가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과제와 앞으로의 활동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이 2018년에 개정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능실습제도의 근본모순을 남겨둔 체로의 제도 개혁에 의해서는, 정부가 의도하는 외국인 수용이 진척이 없었던 것에서 보듯이 이 제도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이 제도의 모순에 의해, 재일외국인이 점점 착취, 관리, 배제의 대상이 되어가는 현상이나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크라임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현상을 직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항거하는 지자체의 대처활동이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또 카톨릭 사이타마교구에서의 재일베트남 사목의 활동 중에 명확해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실태와 생활 지원의 과제에 대해서, 조선유치원의 무상화 배제를 비롯하여 외국루트의 어린이들의 교육, 보육에 대한 심각한 제도적 차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외국인주민과의 공생사회의 실현을 요구하는 각지에서의 활동이나 후쿠시마 이주여성지원네트워크와 ACT Japan Forum의 보고를 통해서 외국인 이재민에 대한 지원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서 연구를 통해서 사회 속에서 주변화되고 배제되어진 사람들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행보를 따르는 것이 교회의 희망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들었고,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교회의 실천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와는 다른 입장에서 기독교회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신뢰관계를 구축해온 활동의 역사와 그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개정입관법은 재일외국인을 단기적 노동력으로서 반복적으로 쓰고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 다양한 노동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이미 많은 생명을 잃었으며,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 현실입니다. 만약 인권과 존엄을 빼앗긴 사람들의 호소를 없던 일로 한다면, 또 헤이트 스피치크라임을 간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사회 전체가 편견과 증오로 인해 붕괴로 치닫게 될 것을 우리들은 역사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사회에서는 정치, 교육,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과거의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존엄을 짓밟고 억압한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마주하지 않으면, 지금도 일본 사회를 깊이 쪼먹는 인종, 성, 민족에 따른 다양한 차별과 대결하고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인권이 지켜지는 다민족, 다문화 공생사회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과거의 역사를 진지하게 마주하여 그 잘못을 분명히 할 것, 그리고 외국인을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주민으로서의 생활을 지지하며, 차별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각자의 문화를 살리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 쌍방의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들은 일본, 한국, 재일교회의 공동작업을 통해 역사를 마주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대화를 진행해 갈 것입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 풍부한 다양성을 실제로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지방자치체에 대한 인종차별철폐기본조례의 제정 등을 요구해 갈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의 실효화와 「외국인주민기본법」 및 「인종차별철폐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서명은 올해도 6400장을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은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사이의 막힌 벽을 허물고, 화해와 평화를 사는 새로운 생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예수의 평화로 초대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또한 사회를 분단시키는 벽을 허물고 차별과 싸우는 에큐메니컬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세계의 기독교회, 또 다문화, 다민족 공생사회의 실현에 임하는 NGO, 지역의 사람들과의 협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재일대한기독교회 나고야교회에서 「제34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자집회」를 개최하고, 다양성 속에서 함께 사는 기쁨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미래를 향한 복음 선교의 사명으로서 삼고, 계속 나아갈 것을 우리는 결의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제34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자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左に韓国語(改革改版)、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72ページ

●価格：3,0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